

황희찬 또 터졌다...리그 8호골 폭발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이번 시즌 8번째 득점포를 가동하며 소속팀 울버햄프턴의 승리를 이끌었다.

황희찬은 6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2023-2024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8일 풀럼과의 13라운드 이후 2경기 만에 터진 황희찬의 이번 시즌 리그 8호 골이다. 엘리 홀란(맨체스터 시티·14골),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10골), 손흥민(토트넘·9골)에 이어 EPL 득점 공동 4위다.

리그에서 이번 시즌 2개의 도움도 작성한 바 있는 황희찬은 EPL 한 시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황희찬은 EPL 무대를 처음 밟았던 2021-2022 시즌 5골 1도움을 기록했고, 지난 2022-2023 시즌엔 3골 1도움을 남겼다.

그리고 이번 시즌엔 물론 득점 감각을 이어가며 EPL 입성 이후 처음으로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돌파했다.

리그컵(커라바오컵)에서의 1골을 더하면 황희찬의 이번 시즌 공식전 전체 공격 포인트는 11개로 늘었다.

이날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의 득점포 이후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으나 실점 없이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1-0으로 승리해 황희찬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8월 말 에버턴과의 3라운드(1-0 승) 이후 모처럼 리그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며 2연패에서 벗어난 울버햄프턴은 12위(승점 18)에 자리했다. 번리는 강등권인 19위(승점 7)에 그쳤다.

황희찬과 마테우스 쿠냐, 파블로 사라비아를 공격 선봉에 세운 울버햄프턴은 하위권 팀인 번리를

EPL 번리전 결승골...득점 4위 시즌 최다 두자릿수 공격포인트 울버햄프턴 2연패 탈출 이끌어 최고 평점...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치렀다.

전반 38분 상대 제이 로드리게스, 조시 브라운힐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연이어 때린 매서운 슈팅을 벤틀리가 연속 선방하며 위기를 넘겼다.

벤틀리는 아스널과의 14라운드에서 부상으로 빠진 주전 골키퍼 조제 사 대신 이번 시즌 리그 경기 첫 선방 기회를 잡고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가슴을 쓸어내린 울버햄프턴은 전반 42분 '해결사' 황희찬의 한 방으로 승부를 갈랐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사라비아가 건넨 공을 중앙에서 쿠냐가 상대 수비 견제에 넘어지면서도 오른쪽의 황희찬에게 연결했고, 황희찬의 오른발 슈팅이 골 그물을 흔들었다.

이날 울버햄프턴은 번리(12개)보다 적은 7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유효슈팅은 4개로 번리보다 하나 더 많았고, 한 골로 승리를 이뤄냈다.

황희찬은 경기 후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표로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은 번리전 이후 진행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총 1만147표 중 83.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2위가 울버햄프턴의 골키퍼 다니엘 벤틀리였는데, 득표율이 6.4%일 정도로 결승골의 주인공인 황희찬에게 표가 몰렸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도 황희찬에게 사라비아 등과 더불어 이날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 8을 주며, 경기 최우수선수에 해당하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뽑았다.



황희찬이 6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거침없이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배드민턴협회, 태국협회 소속 클럽과 활발한 교류한다

MOU 체결...상호 협력 약속

전남배드민턴협회가 태국배드민턴협회 소속 클럽과의 MOU 체결로 배드민턴 발전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6일 전남배드민턴협회(회장 박계욱)는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 태국배드민턴협회 소속 '수안 럼 루앙 밋(Suan Lum Ruam Mitr)' 클럽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현지 클럽에서 열린 협약식은 전남배드민턴협회 박계욱 회장을 비롯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태국배드민턴협회 IOC위원 중 한 명인 태국배드민턴협회 구닝파타 회장, 현지 클럽의 솜사 자문위원 등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체적인 업무 협약 내용은 배드민턴을 통한 협력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것으로 ▲선수 및 수행단의 훈련 및 경기 ▲생활체육 교류 프로그램 및 방문 ▲시니어 배드민턴 육성 ▲상호 문화 교류



전남배드민턴협회가 태국배드민턴협회 소속 클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등이다.

전남배드민턴협회 박계욱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전남배드민턴협회는 태국과 생활체육

교류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K리그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 폐지

이사회서 U22 의무출장제 완화·'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의결

2025시즌부터 K리그에 '아시아쿼터'가 폐지된다. '홈그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제8차 이사회를 갖고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2025시즌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국제 상관이외국인선수 쿼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제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의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내보낼 수 있다. K리그2는 국제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보유하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에서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최근 주요 리그들의 추세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이사회는 2024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아시아쿼터 선수들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활동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도 2025시즌부터 시행된다.

이사회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하기로 했다.

해당 선수는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하고 K리그

에 등록될 경우에도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잉글랜드와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그로운'은 자국에서 육성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K리그에서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한 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시즌부터 K리그1에 한해 'U22 의무출장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U22의무 출장제도'는 22세 이하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을 차감하는 제도다. 올 시즌까지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1명 선발출장 후 추가 교체 투입이 없으면 3명 교체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가 가능했다.

내년 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1명 선발출장 후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선발출장 없이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면 4명 교체 ▲2명 이상 선발출장 또는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의무출장제도를 유지한다.

연맹은 또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 약천후나 시설문제 등이 발생하면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김예을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 극동컵 우승

한국 알파인 스키의 간판 정동현(하이원리조트·사진)이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남자 대회전에서 우승했다.

정동현은 5일(현지시간)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완룽 리조트에서 열린 2023-2024시즌 FIS 극동컵 남자 대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04초 50으로 1위를 차지했다.

2분 04초 96으로 들어온 사토 신타로(일본)와

는 0.46초 차이다.

정동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FIS컵에서 회전과 대회전 두 차례씩 레이스를 석권했다.

이날 열린 극동컵은 FIS컵보다 한 등급 높은 대회다. 여자부에서는 김소희(하이원리조트)가 2분 01초 34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2분 00초 90의 오니시 미코토(일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불
- 2관 서울의 불
- 3관 나폴레옹, 교토에서 온 편지
- 4관 서울의 불, 뉴클리어 나우
- 5관 서울의 불, [위드키즈]극장판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진정한 용기!
- 6관 서울의 불
- 9관 3일의 휴가
- 7관 씨네마필름 상글 인 서울
- 8관 씨네마필름 나폴레옹, 프레디의 피자가게, 매직 프린세스: 얼음 괴물과 사라진 열쇠의 비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무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